

1센터 수소차 산업 집중 육성...2센터 서민주도 창조경제 지원

<광주과기원>

<양동 KDB 빌딩>

광주 창조센터는 1, 2센터로 나뉜다. 광주과기원에 들어선 1센터는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 분야에만 집중한다.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사업은 서구 양동 KDB(옛 금호생명)빌딩에 자리잡은 2센터에서 맡는다. 광주 창조센터의 부문별 사업계획을 요약한다.

◇수소연료전지차 연관 산업 육성=현대차그룹은 27일 출범시킨 광주 창조센터 중 1센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차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창조센터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매년 10개팀 입주 창업 지원

지역재생·시장·소상공인 살리기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산화와 성능향상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손을 잡는다. 연료전지 분리막 개발(코메텍), 연료전지용 가스켓 소재 개발(전남대·금호폴리켐), 수소안전 저장·이송 기술개발(하이리움), 수소연료전지차 V2G(친환경차 충전

전력 외부 송전기술)용 인버터 개발(시그넷시스템)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또 융합스테이션 플랫폼도 구축한다. 융합스테이션은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에너지를 통해 수소와 전기 등의 에너지를 만들어 판매, 저장, 분산발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말한다.

광주 창조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 개발과 검증 사업, 그리고 창업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이미 조성했다.

광주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방산업과 연구 및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내 3대 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서 멀지 않은 여수산단에 있고, 광주과기원·전남대·자동차부품연구원·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 시설도 갖춰져 있다. 연료전지(40여개), 모터(20여개), 배터리(10여개), 인버터(10여개)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이른다.

광주 창조센터에는 전장 부품 구성시스템을 비롯한 시제품 설계, 제작 및 테스트할 수 있는 23개의 장비도 설치했다. 한 장소에서 자동차 관련 아이디어 검증, 시제품 제작, 테스트가 모두 가능하다.

창업 지원은 법률, 금융, 기술 지원이 모두 한곳에서 가능하다. 법률은 법무부, 금융은 금융위원회, 기술은 현대차그룹이 맡아 돕는다. 특히 법무부는 공익 법무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초로 파견, 상주시킬 예정이다.

광주 창조센터에서 보유한 창업 중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현대차의 벤처플랫폼과 연계, 기술 고도화는 물론 현대차그룹과의 동반 해외진출도 추진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 기술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현지 사무소 현대벤처스(현대·기아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탬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은 일단 프로그램 구축(1~3월), 공모(2월), 접수(3월), 심사(4월), 입주(5월), 창업·육성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창조센터는 매년 아이디어 창업화 5개팀, 사업 활성화 5개팀 등 총 10개팀을 제1센터에 입주시켜 창업 보육과 사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밀착형 사업 지원도 추진=광주 창조센터의 주요사업 계획 중에는 타지역 혁신센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민주도형·지역밀착형' 사업들이 눈에 들어온다. 서민주도형 창조경제의 목표는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활성화 지원 ▲생활 창업 지원 ▲창조문화마을 조성 등이다.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은 지역의 전통 시장을 시설현대화로 단순히 겉만 바꾸지 않고 전통시장의 고유한 매력을 되살리는 전통시장 육성 프로젝트이다.

5개시·도 창조센터 주요사업

◆2015년 1월 27일 광주(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연관 산업 지원 육성
-수소펀드·신기술 펀드 등 1675억원 조성
-서민생활창조경제기금 100억원 조성

◆2014년 9월 15일 대구(삼성)
-1500억원 들여 창조경제단지 신축
-200억원대 청년벤처 창업지원 펀드 조성
-하이테크 섬유,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 기계개발 지원

◆2014년 10월 10일 대전(SK)
-936억원 들여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
-450억원 규모 창업지원 펀드 조성

◆2014년 11월 24일 전북(호성)
-1조2000억원 들여 전주 탄소섬유 공장 증설
-400억원 투입해 창조센터·창업센터 설립 운영
-농생명, 전통문화 허브육성
-100억 규모 탄소밸리 펀드 조성

◆2014년 12월 17일 경북(삼성·포스코)
-3900억원 투입해 스마트 제조업 구축
-960억원대 기업지원 펀드 조성

인시장 일부 점포들이다. 또한 서구 양동 발산마을에서는 지역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 창조센터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가까운 이곳 발산마을을 광주 지역의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대표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발산마을은 현재 2232가구 547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740가구, 버려진 집이 21채에 이른다.

광주시와 지역 선정 등의 협의를 거쳐 발산마을 지역재생 사업 모델을 광주시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창업에 필수적인 법률·금융 등 윈스톱 창업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주시 공공데이터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용 포털 서비스도 개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 공예제품 체험장에서 종 위에 직접 '창조경제'라고 쓴 뒤 체험을 하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그 대상은 광산구 송정역 앞 매일시장과 동구 대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매 만 서 놓고...이정현 의원 어디 있어요”

朴대통령 1센터 시찰중 찾아 “현대차-광주센터 묶은 주역”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광주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 후 1센터 곳곳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찾아 주목을 끌었다. 시찰에 동행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임내현·박해자 의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시찰을 거의 마칠갈 즈음 “이정현 의원 어디 있어요?”라며 이 의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행 의원들이 “행사장에 왔는데 지금 안보이네요”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현대기아차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타와 묶어준 주역이 이 의원인데 중매만 서 놓고 안 보인다”고 말했다고 동행자들이 전했다. 그러자 윤 시장은 “현대기아차를 묶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의원이 이 자리(혁신센터 출범식)에 꼭 와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후 시찰에도 동행했으나 당시에만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 의원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대기아차와 연결

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애초 출향기업인 '금호'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주 자동차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연결돼야 한다고 현대기아차 고위관계자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건의하고 설득했다고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시찰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후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광주시장위원장을 만나 “지역을 위한 일이나 할 것 없이 (노력해서) 혁신센터를 성공시키자”고 말했으며 이에 박 위원장은 “당연히 그래야 하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jkpark@

현대차 “수소시장 선점” 특허 1000여건 공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해 윈스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자동차 관련 미공개 특허 1000여건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7일 “광주시와 함께 출범시킨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 창조센터는 자동차 관련 창업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광주 창조센터는 국내외 기술과 특허, 표준규격, 동향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관련 1000여건

의 미공개 특허를 공개하며 신규 특허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협력사에 한해 매달 100여 건의 특허를 공개해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특허를 일반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공개 특허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전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공개 특허까지 공개하며 수소차 연관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세계 수소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

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전 세계 수소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2030년에는 약 4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생산이 쉬워 중국의 차세대 에너지로 꼽힌다. 특히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 관련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가 구현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 교통, 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